

더존비즈온

제주은행 지분 인수, 인터넷 뱅킹 계속된다

- 제주은행 지분 570억원에 14.99% 인수
- 제4 인뱅 대신 인터넷 뱅킹 지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 AI 시대 가장 성장 유망한 핀테크, 13만개 기업 고객 시너지 가능 기대

신한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제주은행 지분 인수

지난 18일 제주은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566만9,783주를 570억원 현금으로 인수해 지분 14.99%를 보유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지분이다. 지분투자의 목적으로 '디지털 전략 사업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취득 예정 일자는 4월 25일이다. 제주은행은 신한지주가 지분 75.31%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테크핀레이팅스(기업 팩토링 및 CB 사업)를 진행하는 신한과의 협력 관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신한지주 제주은행 지분 64%로 감소).

시간과 비용 단축해 인터넷 뱅킹 다시 시작

제주은행 지분 인수라는 방법으로 인터넷 뱅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한다. 지난달 제4 인터넷뱅크 사업 계획을 철회했으나, 이미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은행 지분 인수로 기존 목표했던 기업 자금 대출, 매출 채권 유동화, 그리고 개인 대출 비교 등의 핀테크 영역의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사가 보유한 고객사를 기반으로 제주은행 인프라에서의 ERP 뱅킹 락인효과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업적으로 신규 인터넷 뱅크 설립 대신 비용과 시간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분은 비금융기업이 인터넷 뱅킹 시 최대로 보유 가능했던 34% 대신 14.99%로 줄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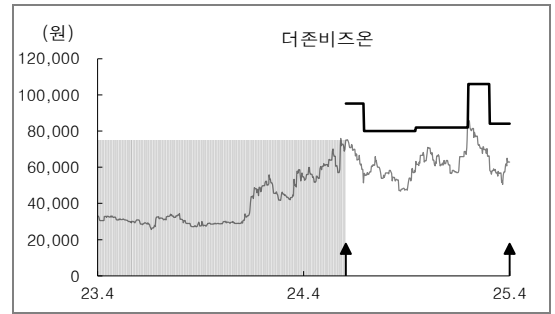
당장 동사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재무적으로 현금 유출이 발생하게 되고, 동시에 제주은행의 이익(24년 100억원)을 지분법으로 인식하게 된다. 지분법 상 피투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 행사할 때 지분법 인식 가능하다. 추가적인 영향력은 향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날 것이다.

AI 시대 핀테크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한국에서는 더존이 구현한다

핀테크는 AI 시대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데이터가 많은 산업 특성상, AI로 비용을 절감하고,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궁무진하다. 동사는 기업 고객 13만개사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금액만 300조원이 넘는 상황으로 누구보다 풍부한 기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주은행과의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만큼, 동사의 우선적인 모멘텀은 1Q25 실적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실적발표는 5월 둘째주 예정이다.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 추이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더존비즈온 (012510)				
2025.03.17	매수	84,000	-	-
2025.02.07	매수	106,000	-30.34	-22.92
2024.11.06	매수	82,000	-22.07	7.32
2024.08.06	매수	80,000	-30.99	-17.63
2024.07.05	매수	95,200	-29.50	-20.90



* 과리율 산정: 수정주가 적용,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투자 의견 분류 및 적용 기준

기업	산업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Trading Buy: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악화
매도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추가하락이 예상	

매수(▲), Trading Buy(■), 중립(●), 매도(◆), 추가(—), 목표주가(→), Not covered(■)

투자 의견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매도
83.98%	6.63%	8.84%	0.55%

* 2025년 0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